

신임 청년분과위원장에 이용욱 씨 만장일치 추대!

- 2.26일(수), 2014년도 제1회 임원회의 개최결과 -

협회 청년분과위원회(위원장 이명환)는 2월 26일(수)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2014년도 제1회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제8대 집행부를 새로이 구성하고 2014년도 청년분과위원회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임원선임의 건을 상정하여, 청년분과위원장에 이용욱 위원(충북 청원)을 만장일치로 추대하였다. 아울러 부위원장에 이영병 위원(경기 김포), 이경훈 위원(충남 보령), 서영수 위원(전북 고창), 손혁준 위원(경북 경주)을 선임하였으며, 감사는 김동현 위원(경북 김천), 정해정 위원(전남 나주)을, 총무에는 나용재 위원(전남 나주)을 선임하였다.



한편 2014년도 사업계획 수립의 건을 상정하여 낙농주요 현안으로, 낙농제도 개편, 목장 경영 안정 및 우유수급 대책, 사료가격 안정 및 낙농환경 대책 등을 설정하고, 이와 관련한 사업계획으로 ▷낙농현안 과제 해결을 위한 활동 전개, ▷여론조성을 위한 대외활동 전개, ▷분과위원회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임원회의 및 간담회 개최, ▷협회 조직활성화에 기여 등에 나선다는 원안을 의결하였다.

또한 긴급안건 상정을 통해 논의된 청년분과위원의 자격에 대해서는 신규·후계농가 임대납유권 배정이 시행된 이후, 차기 임원회의때 청년분과위원회 규정 개정의 건을 상정하여 재논의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명환 위원장은 “협회와 보조를 맞춰가며 낙농현안 해결에 앞장서는 청년조직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그간의 소회를 밝히면서, “청년분과위원회가 한층 젊어지는 조직으로 정비되도록 위원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을 모아준데 매우 감사하며, 앞으로도 분과위 조직활성화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새로 선임된 이용욱 신임 위원장은 “8년여 간의 청년분과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위원장직을 수행해나가겠으며, 늘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전국의 청년낙농인의 뜻을 대표하는 청년분과위원회로서 성실히 조직을 이끌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